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높아졌다

- 통일의식에 대한 일반국민·전문가 여론조사
-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긴장 고조 상태' 지속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02-2072-62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높아졌다

- 통일의식에 대한 일반국민·전문가 여론조사
-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긴장 고조 상태' 지속

Executive Summary	i
I. 2013년 통일의식 여론조사 개요	1
II. 통일의식 여론조사 결과	2
III. 2013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5
[HRI 경제 통계]	17

< 요약 >

■ 2013년 통일의식 여론조사 결과

최근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 따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적 부상을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정부도 '행복한 통일시대 구축'으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현 방안으로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알아보기 위해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814명과 남북관계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5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통일의 필요성과 인식)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해서는 일반인·전문가 모두 공감

일반국민 814명 중 78.0%와 전문가 105명 중 98.1%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국민 상당수(67.0%)와 전문가의 절대다수(98.1%)는 통일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통일의 형태와 예상시기) 남북한 정치·경제 분야의 완전한 통일을 선호, 예상 시기는 1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통일의 형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38.8%)과 전문가(41.0%) 모두 정치·경제적 측면의 '남북한 완전한 통일 국가'에 대한 선호 비중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특히 일반국민의 경우 '자유 왕래 수준'이나 '현 상태'의 '소극적 통일관'은 감소한 반면, '완전한 통일'의 '적극적 통일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일반국민(55.4%)과 전문가(68.6%) 모두 '11년 이상'에 가장 높게 응답했지만,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희망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통일 예상 시기(10년 이내)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은 2010년 17.0%에서 25.2%로 긍정적으로 바뀐 반면, 전문가들은 36.2%에서 29.5%로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통일 비용)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점차 확대

통일비용 부담 의사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의 경우 통일을 위해 연 1만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2010년과 비교해 12.0%p 증가했다. 전문가의 경우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2010년 74.4%(연평도 포격 사건 직전 조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2010. 11. 23) 이후 2011년 43.1%로 31.3%p 감소하였으나, 2013년 66.7%로 다시 상승했다.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중국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크게 증가

중국은 미국에 이어 통일에 도움을 줄 두 번째 나라로서, 긍정적 응답 비율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2012년 대비 일반국민 8.9%p 증가, 전문가 16.4%p 증가)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경우, 긍정적 견해는 감소(16.7%p)한 반면, 부정적 견해는 15.4%p 증가했다. 한편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작년에 비해 11.6%에서 28.6%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 2013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종합 평가) 2013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개성공단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긴장 고조 상태' 지속으로 나타났으며, 4/4분기 기대지수도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무기한 연기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2013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개성공단 잠정중단 당시인 2/4분기에 비해 3.1p 상승한 33.9로 다소 개선됐지만, 긴장 고조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2.6p 소폭 하락한 44.1로 나타났지만, 현재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초기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특징) 2013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문가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긴장고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인식과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3.9p 상승한 36.7을 기록함으로써, 2011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비롯해, 최근 북한이 대외 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특구 개발 중심의 '신 경제체계'를 발표한 것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는 지난 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초기 수준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013년 4/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2.6p 소폭 하락한 44.1로 나타났지만,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 개성공단 중단 당시보다는 다소 덜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경제개혁·개방 조치 발표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 등이 하락폭을 억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나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의 남북관계 개선도 전향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의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는 다소 개선되었다. 3/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28.8보다 2.2p 소폭 상승한 31.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지수의 소폭 상승은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남북경협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 부분의 '이벤트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위한 남북 간의 대화 노력을 포함해,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를 위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북한 여자축구팀이 동아시아컵에 출전하기 위해 8년 만에 남한을 방문한 것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I. 2013년 통일의식 여론조사 개요

- (개관) 최근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 따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주춤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적 부상을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과제임
 - 통일은 남북한의 민족 정체성 회복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발굴, 북한 경제 회생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한반도 통일은 내수 진작과 동북아 허브 육성, 저출산·고령화 문제 완화, 생산요소와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적 조정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신 성장 동력 발굴과 잠재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
 - 북한도 만성적인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을 극복할 수 있어, 종국적으로는 남북한의 민족 정체성 회복과 국격 제고에 기여
- 한편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시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 대통령은 취임사, 3.1절 기념사,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힘
 - 이를 위해 정부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
 - 한편, 국민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국내외 통일·북한 관련 연구기관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
- 이에 최근 통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국민과 전문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 조사 시기 : 2013년 10월 23일 ~ 11월 4일 (13일 간)
 - 조사 방법 : 전화면접 (일반인) / 설문지 조사 (전문가)
 - 조사 대상 :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814명 (일반인)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 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5명 (전문가)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II. 통일의식 여론조사 결과

1. 통일의 필요성과 인식 :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편익 또한 큰 것으로 응답

- 이는 통일편익에 대한 정부 홍보와 국내외 연구 결과, 그리고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에 대한 국민피로감 누적 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대다수의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공감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음

- 일반국민 814명 중 78.0%와 전문가 105명 중 98.1%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

· 2012년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필요하다'라는 긍정적 응답률은 약 5%p 상승하였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음 (20대 66.8%, 30대 74.9%, 40대 84.6%, 50대 이상 84.2%의 순)

통일의 필요성	일반국민		전문가
	2012	2013	2013
필요하다	73.7%	78.0%	98.1%
필요없다	21.1%	20.8%	0.0%
모르겠다	5.2%	1.2%	1.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 포스트 김정일 체제하의 남북관계와 통일의식」 2012. 2.

○ (통일 인식) 통일의 편익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

- '통일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국민 상당수(67.0%)와 전문가의 절대다수(98.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일반국민(2011년 대비 13.8%p 증가)과 전문가(2011년 대비 1.8%p 증가) 모두 과거 조사에 비해 긍정적 비율이 증가

· 일반국민 가운데 '통일이 도움이 된다'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은 ▲남자(76.5%), ▲40대(74.4%), ▲화이트 칼라(73.3%), ▲진보(74.3%) 등임

통일 인식	일반국민		전문가	
	2011	2013	2011	2013
도움이 된다	53.2%	67.0%	96.3%	98.1%
손해가 된다	46.8%	29.9%	3.8%	1.0%
모르겠다	0.0%	3.2%	0.0%	1.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3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남북관계 긴장 상태 지속」 2011. 11.

2. 통일의 형태와 예상 시기: 남북한 정치·경제 분야의 완전한 통일을 선호하고, 예상 시기는 1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통일 형태) 예년에 비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남북한 완전한 통일' 수준의 '적극적 통일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환

- 통일의 형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38.8%)과 전문가(41.0%) 모두 정치·경제적 측면의 '남북한 완전한 통일 국가'에 대한 선호 비중이 가장 높음
- 특히 일반국민의 경우 '자유 왕래 수준'이나 '현 상태'의 '소극적 통일관'은 감소한 반면, '완전한 통일'의 '적극적 통일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전문가들도 '1국가 2체제' 수준의 통일에 대한 선호 비중은 낮아지고, '완전한 통일 국가'에 대한 선호 비중이 높아졌음

통일 형태	일반국민			전문가		
	2010	2011	2013	2010	2011	2013
남북한 완전한 통일	23.7%	25.1%	38.8%	34.8%	27.8%	41.0%
1국가 2체제 평화공존	25.0%	18.8%	18.4%	31.9%	43.0%	34.3%
자유로운 왕래 수준	40.6%	44.4%	32.8%	20.3%	27.8%	23.8%
현 상태도 괜찮다	10.7%	11.6%	10.0%	0.0%	1.3%	1.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에는 찬성하나 비용 부담은 소극적 : 2010 남북관계 대국민 여론조사」 2010. 11.
 「3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남북관계 긴장 상태 지속」 2011. 11.

○ (통일 예상 시기) 전문가들은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거의 전무했으나,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약 20% 수준을 차지하여 전문가에 비해 비관적임

-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11년은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희망적으로 평가
- 다만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바뀐 반면,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변화 (10년 이내 예상 비중 : 일반국민은 2010년 17.0%→2013년 25.2%. 전문가는 36.2%→29.5%)
- 일반국민 가운데 '11년 이상'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은 ▲남자(58.5%), ▲30대(65.6%), ▲학생(74.1%) 등임

통일 예상 시기	일반국민			전문가		
	2010	2011	2013	2010	2011	2013
5년 이내	2.4%	2.8%	3.1%	8.7%	6.3%	5.7%
6~10년	14.6%	16.4%	22.1%	27.5%	29.1%	23.8%
11년 이상	61.6%	61.0%	55.4%	62.3%	63.3%	68.6%
불가능하다	21.4%	19.8%	19.4%	1.4%	1.3%	1.9%

3. 통일 비용 :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 점차 확대

○ 특히 일반국민의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점차 확대

- 일반국민의 경우 통일을 위해 '연 1만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2010년 대비 12.0%p 상승
- 특히, 통일비용의 '부담 거부'와 '연 1만원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2010년 72.1%에서 2013년에는 51.9%로 하락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수준(연 11만원 이상, 15.2%)은 여전히 전문가(同, 66.7%)의 지불 의지에 비해선 매우 낮음

- 전문가의 경우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2010년 74.4%(연평도 포격 사건 직전 조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2010. 11. 23) 이후 2011년 43.1%로 31.3%p 감소하였으나, 2013년 66.7%로 다시 상승
- 이는 남북관계 경색 지속과는 별개로 한반도 통일은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통일비용 부담	일반국민			전문가		
	2010	2011	2013	2010	2011	2013
부담하고 싶지 않다	37.4%	46.0%	27.0%	1.4%	10.1%	2.9%
연 1만원 이하	34.7%	33.4%	24.9%	4.3%	13.9%	2.9%
연 2~10만원 이하	24.6%	17.5%	32.9%	20.0%	32.9%	27.6%
연 11~50만원 이하	2.7%	2.6%	12.1%	41.5%	36.7%	42.9%
연 51만원 이상	0.5%	0.5%	3.1%	32.9%	6.4%	23.8%

4.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 중국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미국, 일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크게 증가

○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크게 증가한 반면, 부정적 견해는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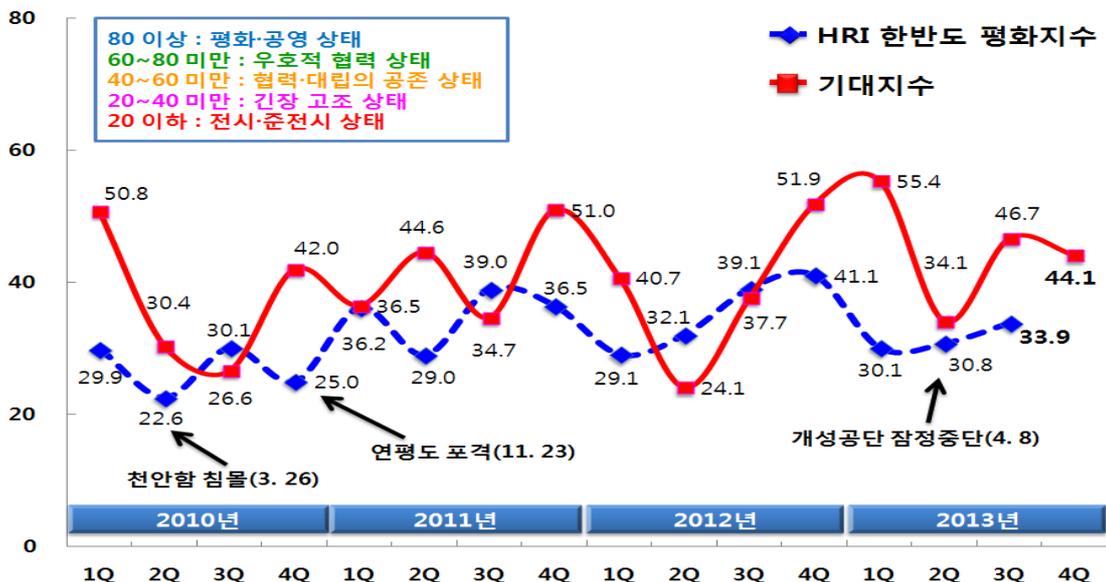
- 중국은 미국에 이어 통일에 도움을 줄 두 번째 나라로서, 긍정적 응답 비율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 (2012년 대비 일반국민 8.9%p 증가, 전문가 16.4%p 증가)
 - 미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경우, 긍정적 견해 비율은 16.7%p 감소한 반면, 부정적 견해는 15.4%p나 증가
- 한편 일반국민의 경우 일본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것이 특징임 (2012년 11.6%→2013년 28.6%)
 - 이는 최근 한·일 간 독도문제, 과거사 왜곡 등의 외교적 갈등이 일반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일반국민		전문가	
		2012	2013	2012	2013
통일에 가장 도움을 줄 나라	미국	42.5%	45.2%	68.1%	51.4%
	중국	29.2%	38.1%	18.8%	35.2%
	일본	4.0%	2.5%	1.4%	0.0%
	러시아	3.1%	4.5%	11.6%	4.8%
	기타	0.0%	9.7%	0.0%	8.6%
통일에 가장 방해할 나라	미국	16.4%	19.2%	11.3%	26.7%
	중국	67.6%	45.2%	69.0%	52.4%
	일본	11.6%	28.6%	19.7%	16.2%
	러시아	4.4%	5.3%	0.0%	0.0%
	기타	0.0%	1.7%	0.0%	4.8%

Ⅲ. 2013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 (종합 평가)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개성공단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긴장 고조 상태' 지속으로 나타났으며, 4/4분기 기대지수도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무기한 연기 등으로 소폭 하락
- (한반도 평화지수)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3.9를 기록하여, 남북 간 '긴장 고조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성공단 중단으로 2/4분기 30.8을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재가동으로 전기 대비 3.1p 상승한 33.9로 다소 개선됐지만, 긴장 고조 상태는 여전히 지속
- (4/4분기 기대지수) 지난 분기 상승에서 소폭 하락으로 반전됐지만, 현재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초기 수준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
 - 2013년 4/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2.6p 소폭 하락한 44.1로 나타났지만, 개성공단 중단 당시보다는 다소 덜 비관적임
 - 이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경제개혁·개방 조치 발표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 등이 하락폭을 억제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나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의 남북관계 개선도 전향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의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2010~2013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 (항목별 평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계기로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정량분석지수는 예년에 비하면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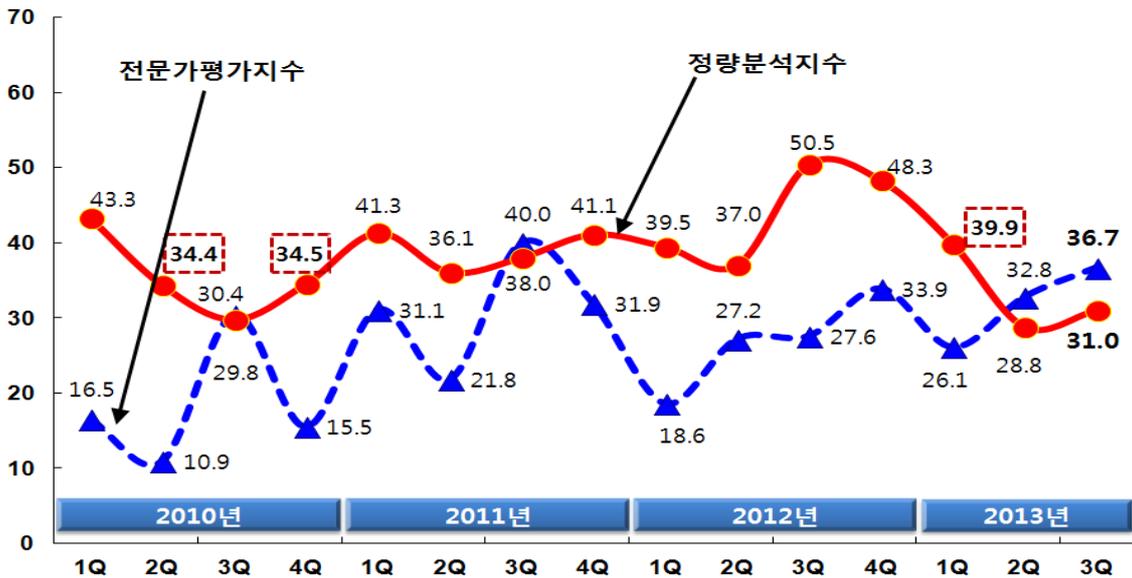
(1) 전문가평가지수 (2013년 2/4분기 : 32.8 → 3/4분기 : 36.7)

- 총 105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에 비해 소폭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 3/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3.9p 상승한 36.7을 기록함으로써, 2011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이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비롯해, 최근 북한이 대외 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특구 개발 중심의 '신 경제체제'를 발표한 것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2) 정량분석지수 (2013년 2/4분기 : 28.8 → 3/4분기 : 31.0)

- 3/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28.8보다 2.2p 소폭 상승한 31.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지수의 소폭 상승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남북경협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 부분의 '이벤트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
- 그러나 3/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천안함 침몰(34.4), 연평도 포격(34.5), 3차 핵실험(39.9)보다 낮은 수준임

< 2010~2013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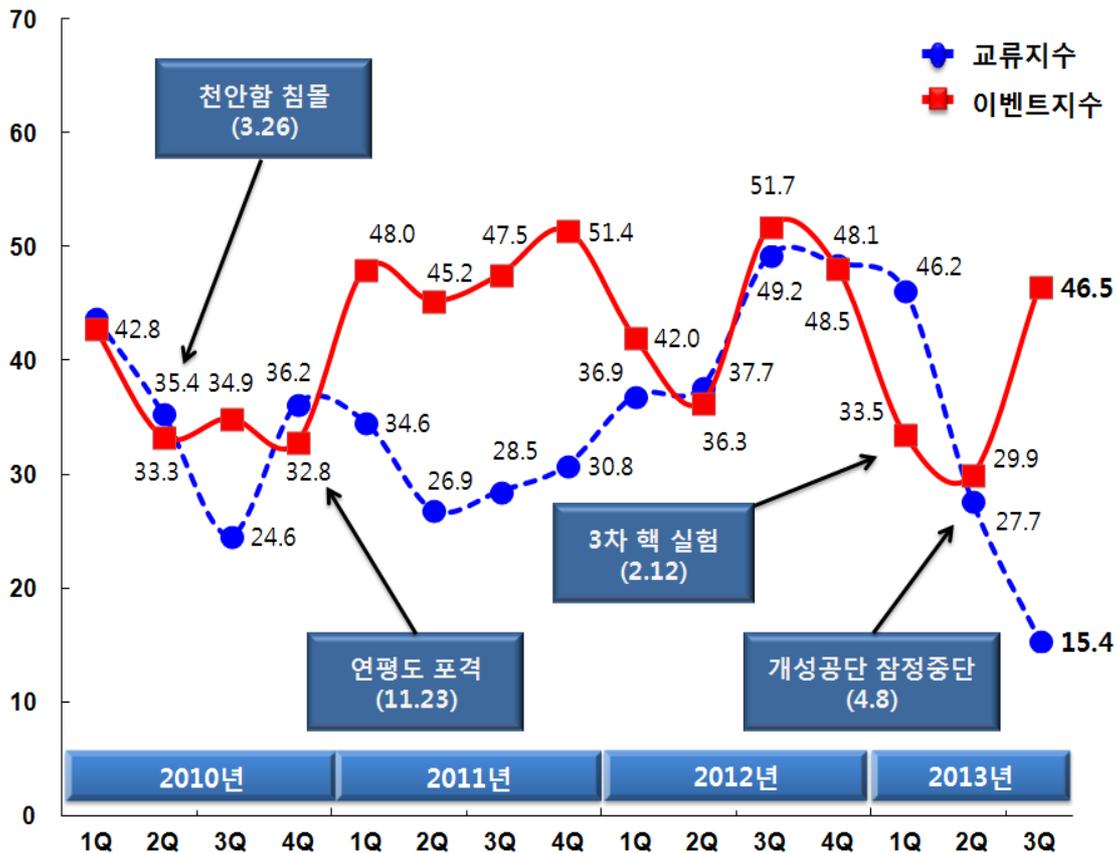
① 이벤트지수 (2013년 2/4분기 : 29.9 → 3/4분기 : 46.5)

- 이벤트지수는 2/4분기 대비 16.6p 상승한 46.5를 기록함으로써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줌
- 이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의 대화 노력을 포함해,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를 위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북한 여자축구팀이 동아시아컵에 출전하기 위해 8년 만에 남한을 방문한 것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② 교류지수 (2013년 2/4분기 : 27.7 → 2/4분기 : 15.4)

- 교류지수는 지난 분기의 하락세를 이어 12.3p 하락한 15.4를 기록했고,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
- 교류지수의 큰 폭 하락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경제협력사업 교역액이 1/4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에 기인 (2/4분기 2억 2천만 달러→3/4분기 5,200만 달러)

< 2010~2013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분석)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평가는 성향 구분 없이 대체로 지난 분기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대치는 소폭 하락해 현 상황이 유지될 전망
- 3/4분기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35.0, 39.5, 35.1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3.0p, 2.4p, 7.0p 상승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반전
 -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 대비 현재의 남북관계를 다소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진보성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음
- 4/4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는 보수 성향의 하락폭이 비교적 큰 편이며, 중도와 진보는 현상유지 혹은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평가
 -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보수적 성향이 지난 분기 대비 8.4p 하락한 41.5로, 중도 및 진보 성향의 47.2, 42.5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이는 개성공단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를 위한 대화조차 시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HRI**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HRI 평화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3. 3분기	35.0 (▲3.0)	41.5 (▽8.4)	39.5 (▲2.4)	47.2 (▲1.3)	35.1 (▲7.0)	42.5 (▽1.8)	36.7 (▲3.9)	33.9 (▲3.1)	44.1 (▽2.6)
'13. 2분기	32.0 (▲4.9)	49.9 (▲16.2)	37.1 (▲11.8)	45.9 (▲12.4)	28.1 (▲3.6)	44.3 (▲9.0)	32.8 (▲6.7)	30.8 (▲0.7)	46.7 (▲12.6)
'13. 1분기	27.1 (▽7.2)	33.7 (▽23.9)	25.3 (▽11.8)	33.5 (▽23.6)	24.5 (▽6.1)	35.3 (▽15.7)	26.1 (▽7.8)	30.1 (▽11.0)	34.1 (▽21.3)
'12. 4분기	34.3 (▲3.9)	57.6 (▲8.4)	37.1 (▲8.5)	57.1 (▲9.5)	30.6 (▲4.0)	51.0 (▽3.4)	33.9 (▲6.3)	41.1 (▲2.0)	55.4 (▲3.5)
'12. 3분기	30.4 (▲0.3)	49.2 (▲8.2)	28.6 (▽0.9)	47.6 (▲10.3)	26.6 (▲0.5)	54.4 (▲18.8)	27.6 (▲0.4)	39.1 (▲7.0)	51.9 (▲14.2)
'12. 2분기	30.1 (▲12.2)	41.0 (▲19.1)	29.5 (▲11.7)	37.3 (▲14.7)	26.1 (▲5.0)	35.6 (▲6.2)	27.2 (▲8.6)	32.1 (▲3.0)	37.7 (▲13.6)
'12. 1분기	17.9 (▽19.1)	21.9 (▽23.0)	17.8 (▽9.8)	22.6 (▽17.1)	21.1 (▽11.0)	29.4 (▽8.7)	18.6 (▽13.3)	29.1 (▽7.4)	24.1 (▽16.6)
'11. 4분기	37.0 (▽2.5)	44.9 (▽5.7)	27.6 (▽12.3)	39.7 (▽12.0)	32.1 (▽5.2)	38.1 (▽12.3)	31.9 (▽8.1)	36.5 (▽2.5)	40.7 (▽10.3)
'11. 3분기	39.5	50.6	39.9	51.7	37.3	50.4	40.0	39.0	51.0

경제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yhlee@hri.co.kr, 02-2072-6222)

홍순직 수석연구위원(sjhong@hri.co.kr, 02-2072-6221)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¹⁾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	20이하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회·문화·인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융자액의 합.

< 부록 3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13년 10월 23일~11월 4일 (13日 간)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 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5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2. 조사 내용

□ 남북관계 분석 및 전망

1. 정치·군사 관계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8.1	7.6
2. 그렇지 않다	41.0	54.3
3. 보통이다	36.2	26.7
4. 그렇다	4.8	10.5
5. 매우 그렇다	0.0	1.0
계	100.0	100.0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2.4	3.8
2. 그렇지 않다	44.8	43.8
3. 보통이다	35.2	27.6
4. 그렇다	6.7	23.8
5. 매우 그렇다	1.0	1.0
계	100.0	10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7.6	10.5
2. 그렇지 않다	37.1	53.3
3. 보통이다	46.7	26.7
4. 그렇다	8.6	9.5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0.0	0.0
2. 그렇지 않다	7.6	13.3
3. 보통이다	46.7	44.8
4. 그렇다	44.8	41.9
5. 매우 그렇다	1.0	0.0
계	100.0	10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4	10.5
2. 그렇지 않다	48.6	47.6
3. 보통이다	35.2	32.4
4. 그렇다	4.8	9.5
5. 매우 그렇다	0.0	0
계	100.0	100.0

1-6) (전망)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8	1.9
2. 그렇지 않다	31.4	37.1
3. 보통이다	50.5	31.4
4. 그렇다	14.3	28.6
5. 매우 그렇다	0.0	1.0
계	100.0	100.0

2. 경제적 관계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6.7	30.5
2. 그렇지 않다	36.2	51.4
3. 보통이다	36.2	16.2
4. 그렇다	21.0	1.9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9	1.9
2. 그렇지 않다	21.0	30.5
3. 보통이다	38.1	35.2
4. 그렇다	36.2	30.4
5. 매우 그렇다	2.9	1.9
계	100.0	100.0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9	3.8
2. 그렇지 않다	18.1	51.4
3. 보통이다	51.4	30.5
4. 그렇다	24.8	13.3
5. 매우 그렇다	2.9	1.0
계	100.0	100.0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9	6.7
2. 그렇지 않다	16.2	35.2
3. 보통이다	52.4	47.6
4. 그렇다	27.6	10.5
5. 매우 그렇다	1.0	0.0
계	100.0	100.0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8.6	17.1
2. 그렇지 않다	35.2	59.0
3. 보통이다	44.8	19.0
4. 그렇다	11.4	4.8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6.7	1.0
2. 그렇지 않다	23.8	36.2
3. 보통이다	44.8	40.0
4. 그렇다	24.8	21.0
5. 매우 그렇다	0.0	1.9
계	100.0	100.0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7.1	17.1
2. 그렇지 않다	41.0	42.9
3. 보통이다	38.1	31.4
4. 그렇다	3.8	8.6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0.0	15.2
2. 그렇지 않다	44.8	57.1
3. 보통이다	32.4	25.7
4. 그렇다	2.9	1.9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9.0	15.2
2. 그렇지 않다	38.1	55.2
3. 보통이다	39.0	23.8
4. 그렇다	3.8	5.7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4.3	18.1
2. 그렇지 않다	46.7	48.6
3. 보통이다	37.1	29.5
4. 그렇다	1.9	3.8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0.5	3.8
2. 그렇지 않다	33.3	33.3
3. 보통이다	39.0	40.0
4. 그렇다	17.1	22.9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연간(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0	1.5	2.3	3.3	2.6	3.8	
	민간소비(%)	2.4	1.7	1.5	1.7	2.2	2.0	2.7	
	건설투자(%)	-4.7	-2.2	2.4	7.1	8.0	3.7	2.5	
	설비투자(%)	3.6	-1.9	-11.9	-5.1	1.8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261	431	100	198	190	620	490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308	283	57	143	111	468	399
		수출(억 \$)	5,552	5,479	1,353	1,412	1,370	5,648	6,123
		증감률(%)	(19.0)	(-1.3)	(0.4)	(0.8)	(2.9)	(3.1)	(8.4)
		수입(억 \$)	5,244	5,196	1,297	1,269	1,259	5,180	5,724
증감률(%)	(23.3)	(-0.9)	(-3.0)	(-2.7)	(0.2)	(-0.3)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4	1.1	1.2	1.4	2.4		
실업률(%)	3.4	3.2	3.6	3.1	3.0	3.3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27	1,085	1,123	1,111	1,098	1,070		

주: E(Expectation)는 전망